관방제림에 가야겠다 천연기념물 제366호인 담양 관방제림이 17일 고즈넉한 늦가을의 풍경을 만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담양 관방제림은 조선시대 홍수 피해를 막아 백성들 살림을 살피고자 조성했던 제방숲으로 푸조나무, 팽나무 등 수백 년을 살아온 나무들이 즐비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담양군 제공〉

함평군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

이벤트 참가자 상품권 제공

함평군이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을 한다.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은 연말연시 급증하는 음주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음주폐해 예방과 절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다.

함평군보건소는 군민을 대상으로 절주실천 수칙 등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퀴즈, 길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희망자는 함평군보건소 카카오채널을 추가해 '절주, 그것이 알고싶다'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함평사랑상품권, 절주캐릭터 인형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또 '뒤집자, 술잔' 슬로건을 내걸고 길거리 캠페인을 한다. 여기에 편의점, 마트 등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 주류판매와 음주조장 유해환경 모니터링도 함께 병행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연말 모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술과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군 본예산 첫 4000억 돌파

내년 4411억 편성… 농림해양수산 등 '위드 코로나' 경제 발전 중점

강진군이 총 4411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

강진군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 농어촌의 소득,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14.6%(550억원) 증가한 4319억원, 특별회계는 11.12%(9억원) 늘어난 92억원으로 강진군 본예산 기준 첫 4000억원을 넘어섰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08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1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899억 원으로 20.82%의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218억원, 농어민 공익수당에 49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47억원, 묵은지 상품화사업에 4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어촌뉴딜300사업에 96억원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10억원을 투입해 낙후된 어촌 환경 개선과 어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돈이 되는 관광,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분홍 나루 노을공원 관광자원화사업에 15억원과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17억원, 노을경관 조성사업에 12억원, 강진만 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학습 홍보관 조성사업에 37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규모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등의 유치에 21억원,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29억원을 반영했다.

군민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63억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원, 청년 일자리 사업에 3억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농촌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7억원, 강진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26억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1억원,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27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나주시, 사랑의 땔감 나눔 행사

숲 가꾸기 사업 부산물 60톤 공동시설·취약계층 30가구 전달

나주시가 사랑의 땔감 나눔으로 쌀쌀해진 날씨를 녹인다.

나주시는 16일 올해 숲 가꾸기 사업 면적 899ha에서 거둬들인 나무 부산물 60t을 오는 26일까지 공동시설과 난방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땔감 나눔은 매년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벌채된 이용가치 없는 목재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적당 크기의 땔감으로 만들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땔감은 읍·면·동 차량을 활용해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한 지원대상자 가구에 직접 전달, 안부를 점검하며 온정을 나누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땔감 나눔은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뿐만 아니라 인화물질 제거에 따른 산불예방, 저탄소 녹색성장, 난방비 절감 등에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매년 쾌적한 숲 조성과 이웃과의 나눔에 앞장서주시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장성 제봉산 '산림청 숲가꾸기' 우수상

장성 제봉산이 산림청 2021년 숲가꾸기 우수사업장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성 제봉산은 장성읍시가지와 가까워 주민들의 왕래가 활발한 곳이다.

장성군은 여기에 산림욕장과 등산로, 전망대 등을 설치했다. 산림욕장 주변에는 진달래, 생강나무, 국수나무 등 꽃이 피는 향토 수목과 청미래덩굴을 식재해 경관을 완성시켰다.

공익숲가꾸기사업을 통해 침엽수와 활엽수가 여러 층으로 혼합되어 있는 '다층혼효림'도 조성했다.

다층혼효림은 미세먼지를 걸러내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주며,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생육환경도 갖출 수 있어 숲 자원 확대에 도움이 된다.

군은 산주와 지역주민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토론회를 열어 숲가꾸기 사업의 방향 설정 및 추진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숲 경관 관리와 생활환경 보전, 목재생산기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군은 내년에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149ha 규모로 숲가꾸기 사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사업 추진을 통해 숲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자연친화적인 산림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청춘 문화살롱' 2기 수강생 모집

화순군이 20일까지 '2021 화순군 청춘 문화살롱'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청춘 문화살롱은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 문화 플랫폼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년 문화 프로그램이며 지난 2019년 군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또 지역 청년들의 문화향유 갈증을 해소하고 청년 모둠 활동과 청년 문화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강의·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청은 만 18세~49세 화순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군 청년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